

이강덕 포항시장, 현장소통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 준비

민선 8기, 7.4兆 기업 투자유치
신산업 중심 지식 산업도시 등 목표
“경쟁력 높여 더 큰 미래 완성할 것”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역원로 및 각종 단체 간담회, 기업 방문, 재난 피해 복구 현장 방문 등 현장소통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민선 6기 시민과 함께 변화를 준비하며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한 후 민선 7기에는 핵심 사업 본격 추진, 도시 경쟁력 도약에 중점을 둔 결과 민선 8기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시는 민선 6기 2014년부터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을 슬로건으로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의 공감과 소



이강덕 포항시장이 1일 열린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 간의 포항의 변화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차전지·수소·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면서 철강에 편중된 지역

산업 구조를 위기에 흔들리지 않게 다 변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어 민선 7기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과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 정주 환경 개선 등 핵심 사업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붙이는데 중점을 뒀다.

그린웨이의 대표사업인 철길숲이 준공(19), 해도도시숲 조성(20) 등 도시의 녹색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하고 함께 법정문화도시 지정, 포항구항과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시정 각 분야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선 8기는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가시적인 성과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조 4000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누적 투자 16조 5000여 억 원을 달성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분야에서

이차전지에 이어 최근 바이오까지 2개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포항시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신산업 중심 고부가가치의 지식 산업도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에너지허브도시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고 최고의 정주여건을 갖춘 균형발전 거점도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해양문화관광도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거버넌스 도시로 포항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0년 간 국내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50만 시민들과 함께 했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에 의미있는 변화들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더 큰 포항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양군

입암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8일~10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한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상·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남도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제공

경상남도는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한 경남 도민 10만여 가구에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1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지난 하반기에 탄소 중립포인트 제도에 가입한 도민으로서, 과거 1년~2년간 월별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에너지를 감축한 도민 10만여 가구이다.

인센티브 지급 내역은 총 97150가구 중 ▲현금 88348가구 ▲지역상품권 4442가구 ▲그린카드 2490가구 ▲지역모금회 기부 1870가구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통영시

‘투나잇 통영! 즐거울 락’ 마무리

통영시는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강구안 해상무대에서 ‘투나잇 통영! 즐거울 락’ 마지막 공연을 개최한다.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5월 25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야간관광 특화도시 통영의 상반기 야간관광 콘텐트인 ‘투나잇 통영! 강구안 나이트 프린지’의 4번째 공연이다.

공연은 솔루스 오브 서울 브라스의 ‘유폐! 상쾌! 통쾌! 금관악기의 매력에 빠질 시간’이며 탱고의 대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Li bertango’와 제임스본드 메들리 등 초여름 밤의 분위기를 날려줄 시원한 곡들이 약 65분간 강구안 해상무대에서 울려 퍼질 예정이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111% 늘어

무안국제공항이 지난해 대비 상반기 이용객이 100%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은 20만64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7631명에 비해 111.5% 늘어났다.

이는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국내 공항을 포함해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이 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UCCN 음악분야 최종 심사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산업수도이자 음악 중심도시 소개 울산만의 창의적 음악소재 내용 발표

울산시가 문화적 도시 위상 제고와 세계적 문화분야 연결망 구축을 위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한다.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가입국가·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연결망이다.

전 세계 93개국 295개 도시가 가입했으며 우리나라에는 서울, 부산, 대구·통영, 광주, 인천·진주·김해, 전주·강릉, 부천·원주 등 12개 도시가 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에 있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진행하는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UCCN) 국내 공모에 음악 분야로 참가해 최종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반구천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 중 ‘피리부는 선인의모습’과 ‘배를 타고 고래를 사냥하는 선인의모습’ 등을 통해 불태 선사시대 당시 음악과 산업이 꾸준히 함께 상호 발전했으며 현재도 대한민국의 산업수도이자, 음악의 중심도시임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법정문화도시 지정 등의 문화적 도약의 성과 ▲울산의 노동과 산업의 정체성이 내재된 달천철장의 쇠부리 소리 ▲12년간 지속한 지역 최초 국제음악교류 기반인 ‘울산 아시아 퍼시픽 뮤직 미팅’ 등 울산만의 창의적인 음악소재를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울산시는 8월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심사 결과에서 통과가 확정되면, 내년 6월 유네스코 본부에 정회원 가입 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후 국외 심사를 거쳐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경북도, 5.5만명 어르신에 일자리 제공

(지난해)

올해 6.4만명으로 확대 제공 계획

경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일자리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주관한 ‘2024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경북도가 대상, 김천시와 청송군이 최우수상, 의성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2023년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엔 ‘대상’에 선정됨으로써 노인 일자리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노인 일자리 시군 수행기관 평가에서는 포항시니어클럽 등 도내 20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우수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기관별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총 1억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2044억원을 투입해 5만5892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올해는 2688억원을 지원해 6만4386명에게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김삼복 기자 ksb8100@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해남군

김해시, 中·日 문화도시와 교류 확대

도자교류전, 조각 페스티벌 등 개최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김해시가 하반기에도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들과 왕성한 교류를 이어간다.

‘동아시아 조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한일중 팝콘서트 ▲동아시아 3국, 현으로 김해를 물들이다 등이 진행되며, 가야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 행사’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김해시는 지난 4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평화와 공존의 바다’라는 주제로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무나카타시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을 알리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8월에는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제와 ▲동아시아 페르소나, 탈 아시아전이 개최된다. 10월에는 전국체전을 문화체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사업들이 집중된다.

‘동아시아 조각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한일중 팝콘서트 ▲동아시아 3국, 현으로 김해를 물들이다 등이 진행되며, 가야문화축제와 함께 열리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폐막 행사’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

김해시는 지난 4월 김해문화의전당에서 ‘평화와 공존의 바다’라는 주제로 중국 웨이팡시와 다롄시,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무나카타시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을 알리며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해남군,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른 이행성과와 체감도가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의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시군구의 4개 평가군별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해남군은 전국 군단위 3위, 도내 1위의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다. 올해 평가에서는 전남도내에서는 전남도와

해남군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남군은 민선8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연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장기 미해결 과제 및 규제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관장의 관심 속에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비롯한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일정한 마일리지 부여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등을 연중 실시해 적극행정이 일선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